

특집논문

정동의 힘과 주체화의 네트워크 - 정동 이론과 젠더 연구의
새로운 접합을 위하여

권명아 | 비교 역사적 연구를 통해 본 정동 연구의 사회정치적 의제

: '여자 때' 공포와 다스려질 수 없는 자들의 힘

김은하 | 아파트 공화국과 시기심의 민주주의

: 박완서의 개발독재기 소설을 중심으로

이윤중 | 좀비는 정동될 수 있는가?

: 「부산행」에 나타난 신자유주의 시대의 정동과 여성 생존자의 미래

비교 역사적 연구를 통해 본 정동 연구의 사회정치적 의제*

: '여자 떼' 공포와 다스려질 수 없는 자들의 힘

권명아**

차례

1. 공론장과 페미니즘
2. 한국에서의 정동 논의와 이론적 원천으로서 젠더 연구의 배제:
식민주의와 성차별주의의 결합
3. 여자 떼 공포와 공론장 주체의 동일성의 정치학: 정동의 '과잉됨'과
반차별 주체 생산의 역사화

<국문초록>

정동 연구가 일종의 '붐'을 이루면서 최근 꽤 많은 논문이 산출되었다. 본 연구는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 진행된 정동 연구와 한국에서 진행된 정동 연구 경향을 비교 검토하면서 한국의 정동 연구의 이론과 현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서구에서 정동 연구가 페미니즘과 젠더 이론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이어받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페미니즘 연구를 부정하는 입장이 강하다. 이런 경향은 한국 지성사의 식민주의와 성차별주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중요한 논점이다. 한국에서 최근 산출된 논문의 경향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유형화해볼 수 있다. 첫 번째로 기존의 문학 연구나 문화연구 영역에 감성 연구와 정동 연구

* 이 논문은 2015학년도 동아대학교 연구년 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 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과 부교수

를 도입하는 경향이다. 두 번째로는 예술 존재론과 이미지 정치에 대한 논의에 입각하여 정동 논의를 전개하는 연구이다. 세 번째로는 에토스와 정동에 대한 논의로 세월호 사건 등을 비롯한 재난과 트라우마, 애도의 윤리와 정동의 문제를 주로 다룬다. 네 번째로는 정동 경제와 사회적인 것에 대한 논의이다. 다섯 번째는 혐오발화에 대한 연구이다. 한국 사회의 혐오 발화에 대한 논의는 정동 이론과 페미니즘, 젠더/퀴어 연구가 결합한 전형적 사례라고 할 것이다. 미국과 유럽,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정동 연구가 다양한 이론적 원천을 계승하고 페미니즘을 모든 이론을 재검토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이론으로 재정립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 달리 한국의 정동 연구는 페미니즘 이론을 역사적이고 이론적 원천에서 삭제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지식장과 학문장, 그리고 공론장에서 여전히 작동하는 식민주의와 성차별주의에서 비롯된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페미니즘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야말로,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의 역능을 문란, 퇴폐, 부적절함, 근본주의적 불순분자로 배제하면서 구축된 근대적 주체성과 공론장의 한계가 반복되는 전형적 사례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시민적 공론장의 형성과 재생산 과정에서 정동의 힘이 ‘여성화’의 방식을 통해 부적절한 힘으로 억압되는 과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특히 여기서 ‘여자 떼에 대한 공포’가 정동의 힘과 ‘다스릴 수 없는 자들의 역능’을 제어해온 역사와 현실을 정동 이론의 차원에서 고찰하였다. 또 이런 역사적이고 이론적인 고찰을 통해 오늘날 이론의 재구성에서 정동 연구와 페미니즘의 결합은 가장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제공할 거의 유일한 역사적 이론적, 실천적 원천이라는 점을 밝혔다.

핵심어 : 정동, 페미니즘, 여자 떼, 다스릴 수 없는 자들, 시민적 공론장, 군중, 메갈리아, 혐오발화

1. 공론장과 페미니즘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이른바 ‘여성주의’ 관련 논쟁이 격렬하다. 여성주의에 대한 논쟁과 토론, 열전이 어느 때보다 뜨겁지만, 막상 그 논쟁에 논쟁 당사자는 기이한 방식으로 배제되어 있다. 페미니즘 논쟁이라고 하는데, 한국 페미니스트들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한국 페미니즘이 이제야 ‘원년’이라는 주장이 페미니즘 논자들에 의해서도 자연스럽게 설득된다. 페미니즘에 대해 말하는 논자들은 참으로 많은데 막상 논쟁 대상이 되는 한국 페미니즘은 역사적 원천에서도 사라지고, 아니 역사 자체가 부정되고 있다.¹⁾

이른바 공론장에서 페미니즘 논쟁 국면에서의 페미니즘 이론가나 연구자의 상황이 이러한데 ‘메갈리안’ 논쟁에 메갈리안 자체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 건 어찌면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페미니즘의 극단화를 우려하며(이제 원년인 페미니즘은 나타나자마자 극단주의가 되었다!) 모두가 ‘토론으로 해결하자’고 하지만 막상 ‘메갈’은 토론장에 입장할 자격이 없다. 공론장이 활성화되면 메갈리안들도 공론장에 입장할 자격을 갖게 될까? 혹은 그 자격을 갖는 일이 중요할까?

그래도 토론에 참여하는 것이 ‘생산적’ 대화를 위해 필요할까? 페미니즘의 극단화를 비판하는 이들과 페미니즘 ‘원년’을 주장하는 새로운 페미니스트들의 논쟁 장에 막상 한국 페미니즘의 담론과 지식과 이론은 이론의 역사적 원천으로서도 역사로도 부재하다.

‘메갈’로 상징되는 여자 떼에 대한 공포는 집단화된 투쟁을 주도했던 기생들에 대한 식민지 조선 남성의 공포를, 여자 스파이단의 공포라는 유

1) 페미니즘에 우호적이고 페미니스트에 의해 구성된 담론에서조차 이런 식으로 한국 페미니즘 역사가 배제되고, 역사적 원천에서 사라지는 일은 자주 드러난다. 최근 페미니즘 불을 계기로 페미니즘 저서나 페미니즘 읽기 목록을 알려주는 기사나 정보 모음은 최근 출간된 페미니즘 서적이나 해외 페미니즘 고전 번역으로 채워져 있다.

령에 사로잡혔던 일제 말기 조선 사회를 다시 떠올리게 한다. 또 해방기의 여성 해방 투쟁, 집으로 되돌아가야 했던 전후의 퇴행과 저항, 긴 억압의 시절과 1980년대 말과 1990년대의 새로운 지식과 해방의 무기로서 페미니즘의 부상. 그 긴 역사를 기록하고 발굴하고 무기로 만들었던 ‘동료 페미니스트들’, 그녀들은 다 어디로 갔나? 그녀들이 지식 장에서 사라진 것도 공론장이 부재했기 때문일까? 혹은 그녀들이 극단주의자였기 때문일까? 공론장을 만든다는 것, 공론장에 들어갈 자격을 갖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필자는 어떤 점에서 장외투쟁을 ‘선택’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장외 투쟁을 통해 조금이라도 ‘공론장의 법칙’ 혹은 ‘지식장의 질서’에 문제를 제기할 기회를 갖게 된 경우이다. 그러나 장외 투쟁을 ‘선택하게’ 된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페미니즘 연구자나 페미니즘 활동가, 혹은 페미니즘 담론 실천에 나선 이들의 경우 장외 투쟁의 반복과 소진 끝에 잠수에 잠수를 거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론장은 어디인가? 왜 그토록 오랫동안 그곳에 페미니즘은 부재한가? 페미니즘의 게으름 때문일까? 한때 그곳에 가까스로 진입했던 페미니스트들은 다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페미니즘의 부상을 공론장의 위기로 환원하는 것, 그리고 부상하는 여성들의 목소리와 힘을 공론장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것이야말로 공론장과 페미니즘의 역사의 산물이자, 그 역사의 반복이다. 공론장의 위기라는 담론이야말로 페미니즘과 공론장 사이에 형성된 이러한 역사적 투쟁을 삭제하는 가장 몰역사적 태도이다. 정동 이론과 젠더 이론의 교차점에 대한 질문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2. 한국에서의 정동 논의와 이론적 원천으로서 젠더 연구의 배제: 식민주의와 성차별주의의 결합

한국의 정동 연구를 ‘오류’라고 비판하면서 최근 연구에서 진태원은 다

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이 논의는 이를 계승한 일련의 논자들의 글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난다.²⁾ 한마디로 정동 연구의 “이론적 기원이 스피노자에 있는데, 정작 이 비평가들이나 연구자들이 스피노자의 정서론에 관해 초보적인 수준에서부터 잘못된 이해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진태원의 진단이다. 또 진태원의 글을 매개로 한국 정동 연구를 번역 문제로 환원하는 논의가 SNS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되기도 했다.

내가 스피노자의 정서론에 관해 다루려고 하는 것은, 요즘 일부 국문학 비평가들이나 네그리 연구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정동’이라는 용어의 이론적 기원이 스피노자(특히 들뢰즈와 네그리에 의해 재해석된)에 있는데, 정작 이 비평가들이나 연구자들이 스피노자의 정서론에 관해 초보적인 수준에서부터 잘못된 이해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피노자의 정서론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를 통해서도 ‘정동’에 관한 국내의 용법이 지닌 문제점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³⁾

진태원이 스피노자 논의에 대해 진행한 일련의 작업은 연구사적으로 의미가 깊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논의에서 진태원이 한국에서 진행되는 정동 연구에 대해 보이는 태도, 논의를 다루는 방식, 담론 프레임을 구성하는 전략은 한국 담론장에 나타나는 반페미니즘과 식민주의를 전형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먼저 진태원은 어떤 근거도 없이 정동 연구의 이론적 기원을 스피노자로 한정하면서, 한국의 정동 연구를 스피노자 해석과 ‘번역’ 문제로 환원해버린다. 실상 진태원의 이 글은 이른바 ‘자율주의’ 진영에 대한 진태원의 지속적인 비판 작업의 연장에 있는 글인데, 이런 진영 투쟁을 위해 정동 연구 자체가 ‘동원’된다. 이런 동원 과정에서 정동 연구의 이론적 원천은 스피노자라는 단일 계보로 자연스럽게 환원된다.

2) 대표적으로는 최원, 「정동 이론 비판」, 『문화과학』 2016년 6월, 82~111쪽.

3) 진태원, 「정동인가 정서인가」, 『현대시학』 2016년 4월호.

인용은 블로그에 게재된 버전임. <http://blog.aladin.co.kr/balmas/8386452>

이런 태도는 단지 진태원의 논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진영투쟁을 위해 페미니즘을 비롯한 여러 운동과 이론을 배제하고 도구적으로 동원하고 한정해온 좌파 담론장의 전형적 패턴이다. 또 이는 페미니즘을 비롯한 타자성의 출현을 위협과 ‘과잉’으로 표상하면서 담론장에 포함하면서 배제해온 이른바 근대 ‘공론장’의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사태이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정동 이론의 원천에서 페미니즘을 흔적도 없이 삭제하는 이런 태도가, ‘메갈리아’를 빌미로 여성들의 정치 세력화를 공론장을 위협하는 ‘근본주의’적인 비이성적 무리의 출현으로 매도하고 공격하는 태도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들의 집단적 목소리의 강도가 높아지자 이를 공론장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항의와 투쟁의 방법으로 특정 미디어에 대한 ‘절독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이 현상은 이른바 공론장 주체와 정동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자신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의사소통적이라고 정체화하는 공론장 주체는 근대성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서 항상 ‘불가해한 타자’의 등장과 거기 동반되는 정동적 힘을 ‘과잉’과 ‘위협’으로 배제함으로써 스스로의 ‘이성적’ 지위를 정당화해왔다. 또한, 이런 절독 운동의 주체들이 한국 페미니즘에 대한 철저한 불신과 이론의 지위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런 점에서 전혀 낯선 현상이 아니다. 정동 이론과 젠더 이론의 접합 지점에 대해서는 이론적 원천에 대해서나 논의의 접점에 대해 너무나 다양한 논점이 있지만, 오늘 여기에서의 ‘사태’들을 소환하여 논의하면서 이 문제를 시작해보자.

정동 연구들(affect studies)이라는 복수성으로 나타나는 연구의 경향에 대해 조금의 조사를 해본 연구자라면 정동 연구가 하나의 이론적 기원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정동 연구는 이와 같은 지식의 기원 회귀적 태도에 대한 발본적이고 급진적인 비판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태원의 논의는 전형적인 기원 회귀적 태도를 반복하는 이론적 계열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태원의 연구와 이와 유사하거나 이에 편승한

이른바 ‘좌파’ 이론가들의 논의에서 정동 연구의 중요한 이론적 원천인 젠더 연구, 페미니즘, 퀴어 이론, 서발턴 이론 등이 통째로 배제된다는 점이다. 이런 연구 태도는 한국에서 여러 차원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생산되고 재생산되어왔다. 정동 연구의 이론적 원천으로 매우 중요한 젠더, 페미니즘, 퀴어 연구를 배제하는 태도는 한국 학문장에 무의식까지 지배하는 반페미니즘 이데올로기에서 비롯된다. 동시에 한국에서 진행된 정동 연구의 경향을 연구사의 원천이나 대상에서 배제하고, 서구의 이론적 원천만을 단일 기원으로 반복하는 태도는 전형적인 지적 식민주의를 반복한다. 이들 논자가 참조하는 연구에서 스피노자, 알튀세르, 들뢰즈는 있어도 페미니즘 연구는 부재할 뿐 아니라 한국의 연구는 비판을 위해서만 동원된다.

이러한 태도가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반페미니즘적이고 식민주의적인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이들의 인용 방식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진태원은 한국 정동 연구가 ‘오류’라는 증거의 하나로 『정동 이론』 번역을 들고 있는데, 막상 『정동 이론』에서 정동 연구의 이론적 원천을 스피노자라는 단일한 기원으로 상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정동 연구와 페미니즘, 젠더 연구, 서발턴 연구와 탈식민주의 연구 등 다양한 이론적 원천에 대한 역사적이고 이론적인 논의는 단지 ‘스피노자와 번역의 문제’를 위해 배제된다.

진태원은 한국 정동 연구를 ‘오류’라고 판정하면서 문제는 자율주의에서 스피노자 해석의 문제라고 논한다. 그러나 막상 자율주의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안토니오 네그리와 마이클 하트의 논의에서 정동 연구는 스피노자 해석의 문제로 환원되지 않는다. 『제국』, 『다중』, 『공통체』로 이어지는 네그리와 하트의 삼부작은 기존의 계급과 이데올로기 중심의 패러다임을 넘어서 세계를 해석하고 변혁하는 중요한 이론으로 정동이 부상하게 된 맥락을 전지구적 체제(『제국』)와 주체화(『다중』) 그리고 삶정치(『공통체』)의 문제로서 공통적인 것(『공통체』)의 문제로 논하고 있다. 특히 지식, 언어, 코드, 정보, 정동 등을 공통적인 것으로 규정하면서 논의를 전개하는

『공통체』는 책 전체가 기존의 이론적 원천에 대한 방대한 연구사적 검토라 할만하다. 물론 『공통체』에서 페미니즘, 젠더 연구, 서발턴 연구와 탈식민주의 등에 대해 해석하고 배치하는 방법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공통체』의 중요한 문제의식은 우리 앞에 도래한 사태가 단지 ‘스피노자와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전면적 재구조화와 근대적인 주체 이론과 혁명적 주체에 대한 이론의 근원적 한계와 관련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공통체』에서 근대적 주체 이론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주요하게 다시 소환되는 것이 바로 젠더 투쟁과 농민 투쟁으로 대표되는 ‘원주민 투쟁’, 반식민지 투쟁이다. 특히 자연, 신체, 생명과 재생산에 대한 페미니즘과 젠더 이론의 이론적 원천들은 기존의 ‘좌파’ 이론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공통적인 것을 둘러싼 삶 정치의 이론과 실천을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몸을 담그고 갱신해야 할 ‘용제’로 자리매김 된다.

에크하르트는 우리의 주의를 삶정치적 사건의 생산성에 집중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짐 한 보따리가 달려온다! **이런 대목을 읽으려면 그 대목이 (마치 사진 현상 용제에 여러 번 담가지듯이) 수십 년 동안의 페미니즘 이론을 거쳐 가계 해야 한다.** 어떻게 ‘여성’이 (주로 여성을 생물학적 생식 능력에 묶어놓음으로써) 여성을 종속시키는 가부장제에 의해 만들어지는가를 분석한 보부아르에서 시작하여, 그 다음으로 특히 가부장제의 기독교적인 양태들과 처녀/음녀라는 이분법의 존속을 드러낸 페미니즘 종교학자들을 거쳐, 마지막으로 여성 형상들이 어떻게 유럽 정치철학의 정전에서 (공적 영역에서 배제되어야 할) 혼란과 위협한 다산의 표지로서 기능하는지를 입증하는 페미니즘 정치 이론가들이 있다. 에크하르트의 설교에서 이 남성주의적이고 이성애주의적인 층들을 벗겨내고 낫을 때 그 표면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확연하게 퀴어적이지 않은가! 남성이 여성적이 되면서 생산성이 폭발하며, 여기서 에크하르트의 신비주의적 비전은 슈레버 판사의 환각들을 상기시킨다. 프로이트의 보고에 따르면 슈레버는 자신이 신에 의해 수태되어 새로운 인류를 낳기 위해서 여성이 되고 있다고 믿었다. 흥미롭게도 에크하르

트에게 생산성은 젠더 교차의 계기와 일치한다(에크하르트가 남성의 여성성에서 자신이 발견하는 것과 같은 생산성을 여성의 남성성에서 인식할 수 있었을까?). 삶정치적 사건은 사실 항상 퀴어적인 사건이며, 지배적인 정체성들과 규범들을 분쇄하고 힘과 자유 사이의 연결을 드러내며 그럼으로써 대안적 주체성을 생산하는 전복적 주체화 과정이다.⁴⁾

진태원은 한국 정동 연구의 ‘오류’ 사례 중 하나로 『정동 이론』 번역을 들고 역시 정동 연구가 스피노자를 오해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진단한다. 흥미롭게도 『정동 이론』에서 정동 이론의 이론적 원천은 스피노자라는 단일 원천으로 회귀 되지도 않으며, 진태원이 그토록 대립적으로 파악하는 자율주의와 스피노자주의는 유사한 원천으로 분류되어 있기도 하다. 또한, 진태원이 이론적 원천에서 전적으로 삭제한 페미니즘, 젠더 퀴어 연구는 스피노자주의와 같은 계열로 분류되어 있다.

세 번째 경향은 철학에서 비인간주의적이고, 종종 허부 영토적이며 보통 비데카르트적인 전통들에서 발견되는데, 이들은 주로 물질의 운동을 과정상의 비물체성과 연결시킨다(스피노자주의). 특히 철학의 여러 젠더화된 한계들이나 기타 문화적인 한계들을 넘어서려는 현대적인 시도들에서 발견된다. 페미니스트의 작업들(로지 브라이도터, 엘리자베스 그로즈, 쥬스비에브 로이드, 모이라 게이튼즈)이나 이탈리아 자율주의(빠올로 비르노, 마우리치오 랫자라또), 그리고 철학적으로 접근한 문화연구들(로렌스 그로스버그, 메건 모리스, 브라이언 미수미), 정치철학(조르조 아감벤, 마이클 하트, 안토니오 네그리)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략)

다섯 번째는 ‘언뜻 보면 눈에 잘 띄지 않는’ 정치적 참여 작업들로, 주로 페미니스트, 퀴어 이론, 장애 활동가들, 그리고 서발턴 사람들처럼, 규범화

4)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공통체』, 정남영·윤영광 역, 사월의 책, 2014년, 108~109쪽.

하는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연구들에서 많이 발견된다. 이 작업은 덧없이 흘러가는 일시적인 것들뿐 아니라, 일과 노동의 나날, 매일과 매야의 생활, 그리고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방식이 아닌 훨씬 더 집단적이고 '외적인' 방식으로 이해된) '경험'이 가진 견고하고 재빠른 물질성에 주의를 기울인다. 그런 물질성에서 집요하게 반복되는 권력의 행사가 신체에 (또는 집단화된 신체들에) 곤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규범의 지평과 경계 속에 존속하면서도 그것을 넘어서는 세계를 실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한다.⁵⁾

이렇게 좌파 이론 내의 진영 투쟁을 위해 특정 원천으로 회귀하고 페미니즘 젠더 이론을 이론적 원천에서 근원적으로 배제하고 삭제하는 작업은 이른바 한국 좌파 이론의 전개 과정에서 특징적이다.

정동 연구가 일종의 '붐'을 이루면서 최근 꽤 많은 논문이 산출되었다. 일단 한국에서 최근 산출된 정동 연구는 단지 스피노자 해석의 문제로 환원되지 않고 다양한 논점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에서 최근 산출된 논문의 경향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유형화해볼 수 있다. 먼저 첫 번째로 기존의 문학 연구나 문화연구 영역에 감성 연구와 정동 연구를 도입하는 경향이다.⁶⁾ 두 번째로는 예술 존재론과 이미지 정치에 대한 논의에 입각하여 정동 논의를 전개하는 연구이다. 양적으로도 가장 많이 논의가 집중되어 있다.⁷⁾ 세 번째로는 에토스와 정동에 대한 논의로 세월

5) 멜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스위그 편저, 『정동 이론』, 최성희·김지영·박혜정 역, 갈무리, 아프콤 총서 02, 2015년 24~25쪽.

6) 이정숙, 『"프레스 정동"의 탄생과 문학자의 "선언" -『동아일보』 "백지광고"에 나타난 시민성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사학회·민족문화사연구소, 『민족문화사연구』, 60호, 2016, 101~126쪽.

조강석, 『시 이미지 연구 방법론』, 한국시학연구 42, 2015, 265~306쪽.

조강석, 『1960년대 한국시의 정동(情動)과 이미지의 정치학 (1)』, 『한국학연구』 38집, 2015.

이정숙, 『1970년대 한국 소설에 나타난 가난의 정동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최성희, 『"웹릿" 영화들과 정동』, 『새한영어영문학』, 58(1), 43~68, 2016.

진태원의 논의는 조강석의 위의 논문을 사례로 한 것이다.

호 사건 등을 비롯한 재난과 트라우마, 애도의 윤리와 정동의 문제를 주로 다룬다.⁸⁾ 네 번째로는 정동 경제와 사회적 것에 대한 논의이다.⁹⁾

-
- 7) 유재홍, 들뢰즈의 문학비평 - 비인칭적 자아를 중심으로 . 『한국프랑스학논집』 41, 2003, 343~364쪽.
 김성호, 「존재 리얼리즘을 향하여:최근의 총체성과 리얼리즘 논의에 부쳐」, 『창작과 비평』 제42권 제3호, 2014, 333~352쪽.
 이수안, 감각중심 디지털 문화와 포스트휴먼 징후로서 '호모 센수스(homosensus)'의 출현」, 『문화와 사회』 18, 2015, 127~168쪽.
 박기순, 들뢰즈와 스피노자: 무한의 사유 , 『진보평론』 31호, 2007, 41~64쪽.
 유재홍, 「들뢰즈의 문학비평 - 비인칭적 자아를 중심으로」, 『한국프랑스학논집』 41, 2003, 343~364쪽.
 홍지영, 「들뢰즈의 '되기' 개념을 통해 재고하는 섹슈얼리티의 문제」,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
 김재인, 「지젝의 들뢰즈 읽기에 나타난 인간주의적-관념론적 오독」, 『진보평론』 56호, 2013, 196~220쪽.
 박현선, 「정동의 이론적 갈래들과 미적 기능에 대하여」, 『문화과학』 2016년 6월, 59~81쪽.
- 8) 김은주, 「에토스로서의 윤리학과 정동」, 『시대와 철학』 26, 2015.
 김은주, 「여성주의와 긍정의 윤리학:들뢰즈의 행동학을 기반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문강형준, 「재난 시대의 정동」, 『여성문학연구』 35호, 2015.
 조경희, 「전후일본 70년과 복수의 평화주의 -SEALDs의 운동과 정동」, 『사이』 20, 2016.
 김종갑, 혐오와 여성의 살정동과 감정 , 『안과 밖』 40, 영미문학연구회, 2016.
 김현희, 외국인 범죄/테러리즘과 반다문화 정서의 “글로벌화” . 『OUGHTOPIA』 30(1), 2016, 213~242쪽.
 김정하, 「트라우마와 정동」, 『비평과 이론』 19, 2014.
 오명석, 「지식의 통섭과 인류학」, 『비교문화연구』 18, 2012.
 임옥희, 『젠더, 감정, 정치』, 여이연, 2016.
 송계숙, 『혼자 살아가기:비혼여성, 임대주택, 민주화 이후의 정동』, 황성원 역, 동녘, 2016.
- 9) 조정환, 『인지자본주의』, 갈무리, 2011.
 조정환, 『예술인간의 탄생 - 인지자본주의 시대의 감성혁명과 예술진화의 역량』, 갈무리, 2015.
 이항우, 「이윤의 지대되기'와 정동 엔클로저」, 『한국사회학』 50(1), 2016, 189~219쪽.
 이항우, 구글의 정동 경제(Affective Economy)」, 『경제와사회』, 2014, 208~236쪽.
 이항우, 「동료 생산(peer production)과 시장」, 『경제와사회』, 2013, 153~183쪽.
 윤영도, 「소셜 미디어 장과 리액션의 정동역학(情動力學)」, 『중국현대문학』 77,

이 네 유형의 연구에서 이론적 원천은 들뢰즈가 압도적이고 젠더 연구는 최근 출간된 임옥희나 캐나다에서 출간된 송제숙의 연구 정도이다. 최근 『문화과학』에서 ‘이데올로기와 정동’이라는 주제로 정동 연구 검토를 진행했는데 이 특집에서도 정동 이론의 원천을 젠더 연구와 결부시킨 논의는 박현선의 글이 유일하다. 정동 이론을 페미니즘 관점에서 재구성한 김은주와 홍지영의 논의는 정동을 되기(devenir)와 변용으로 개념화하면서 주로 들뢰즈의 소수자 되기를 여성되기와 연결해서 논하고 있다. 즉 이 논의의 경우도 정동 이론의 원천으로서 기존 페미니즘과 젠더, 퀴어 연구의 역사적 원천을 자리매김하는 게 아니라, 들뢰즈 이론을 페미니즘적으로 다시 읽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 사회의 혐오 발화에 대한 논의는 정동 이론과 페미니즘, 젠더/퀴어 연구가 결합한 전형적 사례라고 할 것이다. 물론 혐오발화 연구에서 정동 이론이 ‘혐오’ 연구로 한정된 측면이 존재하지만 다양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정동 이론과 페미니즘, 젠더/퀴어 연구가 결합하여 현실적이고 이론적으로 새로운 논의와 실천을 만들어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¹⁰⁾

2016, 113~143쪽.

서동진, 우울한 가족금융화된 세계에서의 가족과 정동, 『한국고전문학연구』 31, 2015.

이강형·김상호, 「감정과 공론장」, 『언론과 사회』, 22(1), 2014, 79~113쪽.

정수영, 공감과 연민, 그리고 정동(affect). 커뮤니케이션 이론, 11(4), 2015, 38~76쪽.

- 10) 이묘랑, 차현숙(다문화+인권을 생각하는 모임), 「교과과정 속의 인종주의 혹은 인종차별」, 『2014 인종차별 실태보고대회 자료집』, UN 인종차별특별보고관방한 대응 시민사회단체 공동 사무국, 2014.

김현미, 「인종주의 확산과 ‘국가없음」, 위의 책.

정혜실, 「미디어 속의 인종주의」, 위의 책.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성적소수자 학교 내 차별 사례모음집』, 2011.

이찬행, 「그들은 왜 빈센트 칭을 죽였을까?」, 『역사문제연구』, 35호, 역사문제연구소, 2016.

허윤, 「냉전 아시아적 질서와 1950년대 한국의 여성혐오」, 『역사문제연구』, 35호, 역사문제연구소, 2016.

임국희, 「맨스플레인, 폭로의 정치를 넘어서」, 『여/성이론』, 33호, 2015, 153~165쪽.

유민석, 「혐오발언에 관한 담화행위론적 연구」, 동국대 철학과 석사학위 논문,

위와 같은 다양한 연구 경향을 참조해 볼 때, 진태원을 위시한 좌파(적보수주의) 이론가들이 정동 이론을 비판하면서 문제를 스피노자와 해석의 문제로 축소하는 방식은 흥미롭다. 이는 논쟁의 형식을 취하지만 실은 논쟁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차원에서 진태원의 정동 이론 비판 방식은 정동과 공론장의 역사가 오늘날 어떻게 반복되는 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이다. 즉 이런 비판 방식은 ‘정동적 힘’을 폐쇄foreclosure 해온 공론장의 역사가 표면적으로는 이론적 갈등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스릴 수 없는 정동의 힘’을 ‘탈역사화’하거나 ‘무역사화’ 하는 논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찰할 수 있는 역사적 사례인 것이다.

3. 여자 때 공포와 공론장 주체의 동일성의 정치학: 정동의 ‘과잉됨’과 반차별 주체 생산의 역사화

최근 한국에서 진행된 정동 연구의 경향을 살펴볼 때 혐오발화 연구가

2015.

유민석, 『혐오발언에 기생하기 : 메갈리아의 반란적인 발화』, 『여/성이론』, 33호, 2015, 126~152쪽.

이승현, 『혐오표현(hate speech)에 대한 헌법적 고찰』, 연세대학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책』, 토론회 자료집,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2016.

『여성혐오와 수치;테러시대 도시의 불안』 심포지엄 자료집,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여성문화이론연구소 공동 개최, 2016.

엄진, 『전략적 여성 혐오와 그 모순: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의 게시물 분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2015.

이연식, 『해방 직후 ‘우리 안의 난민·이주민 문제’에 대한 시론』, 『역사문제연구』, 35호, 2016.

『혐오의 시대에 맞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12가지 질문』, 한국 성소수자 연구회, 2016.

손희정, 『혐오의 시대』, 『여/성이론』, 32호, 2015.

윤보라 외, 『여성 혐오가 어쨌다구?』, 현실문화연구, 2015.

천정환, 『강남역 사건부터 ‘메갈리아’ 논쟁까지』, 『역사비평』, 116호, 2016.

상대적으로 페미니즘 연구와 젠더, 퀴어 연구와의 접점을 마련해가고 있다. 혐오발화는 증오 정치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인종, 성, 종교, 연령 등 사회적 소수자의 소수자성을 공격 대상으로 하는 차별 선동을 의미한다. 혐오 발화에 대한 개념 규정이 1980년대 말의 전 지구적 자본주의화에 따른 지구적 변동에 대처하는 이론적 실천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개념화는 신자유주의적 시대 변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나 혐오 발화에 대한 개념 규정은 증오 정치로 상징되는 근대 역사의 구체적 경험과 이론화를 원천으로 한다. 따라서 혐오 발화 연구는 증오 정치라는 근대의 역사적 경험과 이론화를 재구성하는 이론적 차원을 내포한다.

또한, 역사적으로 근대 주체의 지배적 정체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다수의 힘이 표출할 때 이 힘이 과잉됨의 표상(홍수, 패거리, 벌레 떼, 성난 폭도, 물지각한 여자 떼와 같은)으로 담론 공간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은 역사적 맥락에서 정동을 논의하는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지점이다.¹¹⁾ 특히 이러한 연구는 근대적 통치성과 여기 포섭되지 않는 ‘다스려질 수 없는 자들’(ungovernable)의 붕괴와 그 실패의 역사를 현재의 맥락으로 다시 소환해서 평가하는 작업이라 할 것이다. 다스려질 수 없는 자들의 역사를 통해 새로운 정치학을 구성하고 신체(하나의 신체에서 사회적 결속을 아우르는)에 대한 새로운 유물론을 생성하는 지점에서 푸코의 통치성에 대한 역사적 작업과 페미니즘과 근대성 비판의 연구, 서발턴 연구들이 정동 연구로 결합한다.¹²⁾

11) 한국에서 근대문학에서 2000년대 표상 구조에서 이러한 정동의 과잉됨이 홍수, 범람, 벌레 떼와 물지각한 폭도의 이미지로 포함되면서 배제되는 구조는 권명아, 「정동의 과잉됨과 시민성의 정치학: 홍수의 표상과 잠수의 정치학」, 『서강인문논총』, 『서강인문논총』, 31호,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115~142쪽 참조.

12) 물론 정동 연구에서 중요하게 주목하는 지점은 논자들마다 상이하다. 이는 앞의 논의 지형을 참조해도 분명하다. 필자는 역사적 과시즘에 대한 연구의 문제틀(『역사적 과시즘:제국의 판타지와 젠더정치』, 책세상, 2005)을 토대로, ‘다스려질 수 없는 자들’의 정치학과 역사유물론을 재구성하는 작업(『음란과 혁명』, 책세상, 2014. 『무한히 정치적인 외로움』, 갈무리, 2014)을 진행해왔고, 혐오발화에 대한 연구 역시 이 연장에서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는 정동 연구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주로 이론적 독해(들뢰즈 다시 읽기)와 신자유주의와 인지도본주의적 재구조화와 같은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혐오발화에 대한 논의 역시 주로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의 문제로 논의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현재 한국의 정동 연구에서 앞서 논한 역사적 관점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단지 ‘역사연구’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앞서 한국에서 정동 연구에 대한 논의가 이론의 역사적 원천에서 페미니즘, 젠더, 퀴어 연구, 서발턴 연구를 배제하고 있듯이 ‘정동적 현상’에 대한 문제설정에서도 역사적 관점이 누락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여성혐오와 관련된 논의에서도 문제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성과 세대 문제로 환원되고, 여성 주체의 부상 역시 주로 세대 차원으로 한정된다. 이런 논의가 현상을 진단하는 데에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 역설적으로 주체화의 역사를 배제함으로써 이론과 실천으로서의 페미니즘의 역사가 매번 삭제되는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낳는다.¹³⁾

물론 최근 새로운 여성 집단 주체의 대두가 인터넷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현상은 세대 문제이다. 또 이러한 인터넷 커뮤니티가 남성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 뿐 아니라 세대 간의 인정투쟁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대 간의 차별화를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여성 집단 주체의 등장에서 차이와 반복의 문제를 고찰하기 위해서도 역사적 관점이 필요하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대두한 새로운 여성 집단 주체를 이성과 성찰이 결여된 ‘근본주의적 폭도’, ‘패륜 집단’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이성, 성찰, 대화와 의사소통으로 상징되는 ‘공론장’에서 축출해야 한다는 반여성주의적 담론의 부상은 새로운 여성 집단 주체의 부상과 반페미니즘 공격이 세대 간의 차이만이 아니라, 역사적 반복 혹은 역사적 구조화의 차원에서 접근해야만 할 문제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13) 새로운 여성 집단 주체의 부상을 세대론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여성주의적 논의는 그 정치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한국 페미니즘의 역사와 이론을 부정하는 반페미니즘의 담론 형식에 대해 효과적인 대항을 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흥미로운 사례는 이른바 공론장 주체를 자임하는 이들의 매체 ‘절독 운동’이다. 이른바 ‘메갈 사태’로 표명되는 일련의 사태에서 집단적인 여성 주체성은 ‘메갈’이라는 특정 정체성 표지로 환원된다. 이때 ‘메갈’이라는 규정은 매우 흥미롭게도 인종차별주의에서 작동하는 인종화(racialization)의 메커니즘을 반복한다. “인종화란 ‘인종’이라는 사고의 역사적 발현과 그 이후의 적용 및 재생산 과정”을 뜻한다. “차별화된 사회적 집합성을 구조화하고 정의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생물학적 특징을 두고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낸 범주화 프로세스이다. 그러나 인종화 과정은 ‘신체적 특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담론적, 문화적 과정이기도 하다. 인종 구분과 유사한 의미와 가치를 환기함으로써 인종화의 과정은 소수 집단을 인종에 결부시켜 표시하고 낙인찍는 것이다.”¹⁴⁾

즉 여기서 살펴볼 지점은 ‘메갈리아’라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실태와 정체가 아니라, 여성 집단 주체의 힘의 봉기를 ‘메갈’이라는 특수하게 정체화된 집단으로 환원하는 인종화의 메커니즘이다. 특히 ‘메갈’이라는 정체성을 공론장으로 끌어들이는 과정(포함하는 배제)이 이러한 인종화 과정과 동시적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즉 메갈리아나 여타의 인터넷 커뮤니티는 이른바 공론장의 담론 구조나 질서에 편입되지 못하거나 편입을 거부한 채 항상 그 외부나 수면 아래에 잠복(잠수)해 있었다. 이들은 여전히 ‘잠수’를 커뮤니티 유지의 원리로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이 이른바 공론장이라는 담론 공간 ‘위로’ 부상하자마자 이들이 ‘위협적 힘’이나, ‘야만적 근본주의’, 반문명적 패륜 집단으로 공론장에 적대적인 의미로 규정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여성의 집단적 힘의 부상을 인종화 과정을 통해 공론장에서 배제한 것은 한국의 근대사를 통해 반복되었다. 예를 들어 한국 근대사에서 ‘풍기문란’이라는 규정이 작동한 방식이 전형적이다. 풍기문란 집단에 대

14) 김현미는 마일즈의 인종화 개념을 빌어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개념이 인종화 되었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김현미, 『인종주의의 확산과 ‘국가없음’』, 『2014년 한국사회 인종차별 실태 보고대회』 자료집, 9쪽.

한 규정은 근대적 시민 주체(선량한 시민)와 반문명적이어서 계몽과 ‘차별’이 필요한 풍기문란 집단이라는 정체성 정치를 통해 만들어졌다. 근대적 시민 주체의 개념과 이상, 제도과 가치는 ‘풍기문란 집단’이라는 반 근대적, 반문명적인 정체성 집단을 생산함으로써 구축되고 재생산된다. 즉 풍기문란 집단은 야만, 금수(짐승), 떼거리의 속성을 벗어나지 못한 반문명 집단으로 규정되었고 이런 과정을 통해 근대적 주체의 타자로서 매번 인종화 된다. 근대적 주체와 ‘문명화된’ 공론장은 이렇게 ‘야만적 떼거리’를 계몽하고 문명화시키는 장이기도 했다. 물론 풍기문란 집단으로 구별되는 속성은 여성뿐 아니라, 하위 집단 남성, 떠돌이 노동자 등으로 무한히 증폭되었다. 이렇게 구성된 근대 공론장(지식, 문학, 표상 체계를 아우르는)에 이러한 인종화 된 타자가 진입하는 것은 ‘홍수’, ‘문란’, ‘퇴폐’, ‘망국’, ‘폭도’와 같은 과잉의 표상을 통해서였다. 이 과잉이야말로 정동의 힘에 대한 근대적 표상의 전형적 방식이다. 즉 과잉된 힘의 분출에 대한 표상 체계는 역설적으로 그 사회에서 항상 ‘잠수’(잠재성!) 상태에 있어야만 했던, 공론장 주체라는 표상과 대표성에서 배제되었던 ‘다스려질 수 없는 자들’의 힘이 솟아오르는 사건적 순간으로서 읽어낼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이런 ‘정동적 힘의 분출’을 과잉과 문란, 공론장의 타락으로 일방적으로 환원하는 논의를 페미니즘 내에서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성차별적일 뿐 아니라, 인종주의적 혐오발화로 가득 찬 논의를 여기서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페미니즘에 친화적이고 이른바 계급, 노동 중심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다양성’을 중요한 가치로 제시하는 논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고민해보자.

먼저 이른바 ‘진보’ 진영 내에서 계급으로 환원되지 않는 집단의 목소리를 기록하는 역할을 해온 이선옥의 논의에서도 이런 공론장과 근본주의적 야만이라는 대립은 ‘떼갈’이라는 집단을 비판하는 중요한 축으로 작동한다.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선언과 여성혐오 배격 운동이 이어진 최근 2년

동안 적어도 ‘여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진 사건은 논쟁 대신 억압적인 분위기가 지배했다. 논의는 실종되고, 공론장은 사라졌다. 혐오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혐오의 언어가 확산되고, 낙인과 공개적인 망신주기가 횡행했다. 이견 아닌데 하는 목소리는 혐오와 반혐오라는 단일 전선에서 설 곳을 찾지 못한 채 증립층, 공정층, 진보피시층과 같은 혐오의 언어로 공격당했다. 갈등은 단일하지 않은데 전선은 단일하게 강요됐다. 이번 사태도 여러 결의 갈등과 전선이 존재하는데 ‘티셔츠 하나 입었다고 해고당하는 여성혐오 세상’ 같은 자극적인 주장이 앞선다. 사태를 해결하기보다 이런 갈등을 반복하는 데 기여할 뿐이다.

진영과 진영이 대립하고 불편부당함이 아닌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지배하는 현실에서 우리는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할까?

혐오의 표현은 어느 집단을 막론하고 배격하되 불편부당함의 원칙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다. 문제 제기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의 극단적인 모습을 부각해 증오를 강화하는 방식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억압에 침묵하기보다 계속 발언하고, 내부의 극단주의자들을 고립시키고, 설득하면서 합의해야 한다.** 여성 문제에 관해서 우리 사회는 공론장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를 인정하는 일이 먼저 필요하다. 사라진 공론장을 회복해서 혐오의 개념, 혐오의 범위, 혐오행위에 대한 사회적 제재, 동료시민으로서 역할을 논의하면 된다. 내치거나 멸시하지 않고, 집단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성차별이라는 구조적인 경향성은 인정하되 개별 사안마다 가진 맥락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¹⁵⁾

이선옥의 글에는 여러 논점이 내포되어 있다. 중요 논점은 이른바 넥

15) 이선옥, 『메갈리안 해고 논란? 이견 여성 혐오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적 정의와 진보의 가치... 극단주의자들이 우리의 신념을 대표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미디어 오늘』, 2016년 7월 25일.

슨 사태가 여성혐오 문제가 아니라든 점, 메갈리아의 여러 그룹을 구별해서 논의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점이 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글은 ‘진보 진영’과 여기 동일화하는 ‘공론장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보 진영의 정체성을 지키는 전략을 분명하게 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글에서 진보 진영의 정체성과 “여성 혐오 배격 운동”은 적대적이고 대립적으로 분명하게 규정된다. 더 나아가 이선옥은 “여성혐오 배격 운동”이 진보 진영에 대해 ‘억압’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래서 이 글은 억압에 대항하며, 억압 주체인 “여성 혐오 배격 운동”을 “극단주의”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를 인정하는 일이 먼저 필요하다.”고 반복해서 강조한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바로 “공론장을 회복”하는 일이다. 공론장을 회복해야 한다는 논의는 이렇게 표현된다. “억압에 침묵하기보다 계속 발언하고, 내부의 극단주의자들을 고립시키고, 설득하면서 합의해야 한다. 여성 문제에 관해서 우리 사회는 공론장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를 인정하는 일이 먼저 필요하다.”

이 담론 구조는 너무나 흥미롭다. 여성주의는 진보 진영에 대해 억압으로 작동하고 있고 진보 진영은 “억압에 침묵”하고 있다. 이것이 “여성 문제에 관해서 우리 사회는 공론장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진단의 근거이다. 그리고 사라진 공론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억압에 침묵하기보다 계속 발언하고 내부의 극단주의자들을 고립시키”는 일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게 이선옥의 주장이다. 표면적으로는 공론장, 대화, 의사소통을 논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진보 진영과 여성 문제를 적대적으로 규정하고, 더 나아가 “여성혐오 반대 운동”을 극단주의로 규정한다. 여기서 좀 더 흥미로운 것은 ‘내부의 극단주의’라는 표현이다. 이 글의 부제는 “선택적 정의와 진보의 가치... 극단주의자들이 우리의 신념을 대표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이다. 즉 여성혐오 반대 운동이 극단주의이며, 이에 동조하는 진보 진영 내부 그룹 역시 ‘내부의 극단주의’로 간주한다. 그래서 “극단주의자들이 우리의 신념을 대표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요청과 당부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 글의 핵심 주장인 공론장의 회복이란 진보 진영의 정체성을 오인하게 하는 극단주의자를 고립시키고 이에 대해 담론을 형성하는 일을 뜻한다. 녹색당과 노동당,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 정당’은 이 문제에 휘말려 들지 말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선을 긋는다. 흥미로운 건 “여성 혐오 배격 운동”을 ‘통진당’ 사태의 연장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진보 진영의 정체성이 ‘오인될 가능성’이란 다름 아닌 통진당 사태를 뜻한다.

통진당에 문제가 생기면 노동당에 항의전화가 온다. 민주노동당에서 서로 갈라진지 몇 년이 지났고, 노동당과 민주당 사이에 실개천이 흐른다면 통진당과 노동당 사이에는 장강이 흐른다고 할 정도로 이질적인데, 대중에게는 모두 같은 진영일 뿐이다. 대중이 무지해서 그런다고 해봐야 해결되지 않는다. 문제는 대중의 무지가 아니라 모두 하나로 인식되는 상황 자체에 있고 이는 진영이 자초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진보진영의 대응은 유감이다. 정의당과 녹색당, 노동당은 이 사안에 대해 각각 문화예술위원회, 청년녹색당, 여성위원회 차원의 논평을 했다. 그런데 그동안의 논평과는 달리 내부 당원들의 비판에 직면했다. 정의당의 경우 문화예술위원회의 논평에 당원들이 이례적으로 격렬한 비판을 하고 나섰다.¹⁶⁾

“여성 혐오 배격 운동”을 통진당 사태로 결부시킬 만큼 진보진영이 느끼는 정체성 위협은 막강한 것이다. 진보 정당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과 단호함은 이런 막대한 위협감에서 비롯된다. 진보 정당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극단주의자를 배격하고, 특히나 내부의 극단주의자를 고립시켜야 한다는 이런 논지는 이른바 미디어 ‘절독 운동’과 아주 정확하게 같은 논리와 담론 구조로 되어 있다.

16) 이선옥, 앞의 글.

특히 이 사태는 모두 이른바 ‘진보 진영’이라는 주체성을 표명하고 정체성을 ‘인증’하는 절차이자 과정으로 공표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르주아 자유주의나 보수주의와 달리 진보 진영은 타자성에 열려 있고, 변혁적 운동에 연대하며 현실 변화와 경향성을 (모순의 객관성과 총체성!) 파악한다는 ‘통념’과 달리 이 사태에서 진보 진영의 정체성은 ‘동일성 인증’(‘시사인, 너희가 이럴 수가’ ‘조중동과 다른 게 뭐냐’)을 통해서 경계를 확정한다. 즉 한국의 진보 진영은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와 시사인, 시사저널 등 특정 매체의 독자라는 정체성을 지닌다. 그리고 반대로 이 매체들 역시 이런 독자의 요구를 반영한다. 즉 한국의 진보 진영의 정체성은 미디어와 독자 주체 사이의 상호 동일성, 등질적인 상호 참조와 교섭 작용으로 구성됐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간주하여 왔다. “시사인 너희가 이럴 수가!”는 바로 이러한 믿음과 신뢰의 역사에 대한 이른바 진보적임을 자임하는 ‘독서 주체’의 배신감을 정확하게 표명하고 있다.

이른바 근대적 공론장이란 근대 인쇄 매체의 발전에 따라 신문, 잡지, 단행본을 읽으면서 상호 성찰성과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구축한 독자 주체에 의해 생산되고 재생산되었다고 논의된다. 그러나 페미니즘 연구와 서발턴 연구, 다스려질 수 없는 자들에 대한 연구가 다 같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근대 공론장에 소수자의 자리는 없었고, 오히려 소수자를 공론장에서 배제하면서 공론장의 ‘시민권’과 독서 주체는 생산되고 헤게모니적 지배를 계속해왔다는 점이다. 정동 이론은 이에 대해 또 다른 시각을 제공하기도 한다. 특히 가브리엘 타르드의 군중(*la foule*)과 공중(*le public*)에 대한 논의는 정동 이론에서 새로운 미디어와 네트워크 기반 주체가 근대적 공중과 어떤 차이와 가능성을 지니는지를 논의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원천을 제공하기도 한다.

공중은 “인쇄물 특히 신문을 읽는 행위로부터 성립한 새로운 사회집

단”이며 데카르트나 르봉과 같은 19세기 학자들은 이런 공중을 자율적 개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가치를 두는 근대 주체의 상징으로 간주했다. 반면 군중은 ‘군중심리’에 대한 르봉의 논의가 보여주듯이 “근대 도시 공간에서 우발적으로 육체적인 접촉을 하게 되면서 감정적인 동조나 충동적 행동을 하는”, “사회를 혼란에 빠트리는 일탈 행동을 하는” 존재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가브리엘 타르드는 르봉의 입장과 달리 군중보다 공중이 자신의 판단과 정신의 자유에 의해 판단을 내리기보다, 오히려 군중과 비교해서 더욱 등질적일 수 있다고 보았다.

타르드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군중 속에 휩쓸려 자기를 잃은 개인보다, 신문 독자 쪽이 더 많은 정신의 자유를 갖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타르드, 1901) 이 대목은 당시 군중과 공중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즉, ‘군중’은 감정적이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기 쉽지만, ‘공중’은 무엇보다도 ‘독서’하는 주체이고 보다 자유롭고 보다 이성적이며 합리적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타르드에 따르면 이런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공중’은 ‘군중’과 비교해서 더욱 등질적일 수 있다.

물론 독자는 기사를 읽고 내용을 숙고한다. 평소의 수동적 태도를 전환하기도 한다. 그러나 또한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의견이나 감정에 합치되는 다른 신문 쪽으로 쉽게 이동하기도 한다. 한편, 기자들 역시 이런 변덕스러운 독자의 동향을 감지하고 독자를 끌어오려고 한다. 타르드는 이 관계를 ‘상호적합에 근거하는 상호선택’ 혹은 ‘이중의 상호적응’과 ‘이중의 상호선택’이라고 규정한다. 이 상호적응과 선택의 결과, 독자들은 ‘자기의 편견이나 감정에 비위를 잘 맞추는 신문’을 택하게 되고, 한편 신문 쪽은 ‘다루기 쉽고 가변적인 독자를 자기 마음대로 골라’ 낸다.¹⁷⁾

17) 이토 마모루, 『정동의 힘』, 김미정 역, 아프콤 총서2, 갈무리, 2015, 76~77쪽.

신문을 읽는 독서 주체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는 당대의 지배적 인식에 대해 타르드는 오히려 신문과 독자 간의 상호 적응과 상호 선택에 의한 등질화 과정을 주목한다. 이런 해석에 비춰보자면 앞서 논의한 ‘절독 운동’의 경우는 공론장의 부재에서 오는 현상이 아니라, 공론장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의 반복이라 할 것이다. 즉 지금까지 상호적응과 상호선택에 의해 등질적 관계를 구성해 온 신문과 독자 사이의 상호 등질성이 위기에 봉착했다는 위기감이 ‘절독’ 운동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디어 절독 운동은 이른바 지금까지의 공론장이 바로 이러한 상호 등질성에 의해 구성됐다는 점을 매우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공론장은 부재하지도 위기에 처하지도 않았다. 애초부터 여자 떼와 다스려질 수 없는 자들은 공론장을 구성하는 미디어와 독서 주체 사이의 상호 등질적 상호 선택과 상호 적응에서 배제됐고 배제되고 있다.

특히 문화 영역에서 여성들이 문화의 보호자 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¹⁸⁾ 여성은 ‘관객’, ‘소비자’, ‘독자’로서의 수동적인 지위만을 부여받는다. 문화 생산물에 대한 여성혐오 비판의 중요 동력 중 하나는 여성과 문화 생산장 사이의 관계가 앞서 살펴본 독자 주체와 공론장 사이의 관계와는 너무나 다른 종속적 지위라는 점에 대한 저항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문화 생산에 대해 수동적인 지위를 벗어나 능동적인 상호 교섭을 시도하는 여성들의 정치적 실천은 매번, 기껏해야 소비자 권리 운동으로 환원되고 매도된다.

이선옥은 넥슨 사태에 대해 여성 혐오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게임 유저들의 강변을 대변하기도 한다. “게임 유저들은 바로 이 지점을 말하고 있다. 남성이 하면 혐오이고, 여성이 하면 왜 혐오가 아닌지, 여성의 불매는 왜 정당한 사회운동이고, 남성의 불매는 왜 여성혐오자들의 준동

18) 천정환. 앞의 글.

인지.”¹⁹⁾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근대 공론장이 형성된 역사를 통해 볼 때 남성의 불매는 공론장 주체의 지배적 헤게모니를 관철하려는 시도라면 여성의 불매는 바로 그러한 지배적 헤게모니에 저항하여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벗어나 상호 교섭을 시도하려는 정치적 실천인 것이다. 이런 ‘불매’의 성격을 전혀 해석하지 못한 채, 헤게모니 지배를 관철하려는 지배적 다수자의 억압적 통제와 이를 벗어나려는 소수자의 상호 교섭적인 지위를 확보하려는 투쟁을 ‘동일한 소비자 운동’으로 환원하려는 시도가 말로 매우 이데올로기적이다.

물론 이러한 비판은 공론장이 해체되어야 한다거나 불필요하고 ‘공중’이 이를 대체해야 한다는 낭만적 결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토 마모루도 지적하고 있듯이 오늘날 정동 이론이 타르드의 공중과 군중에 대한 논의를 이론적 원천으로 다시 해석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경향의 연구 의제를 도입한다. 먼저 근대성에 대한 역사적 재해석 작업이다. 공중에 비해 군중을 충동적이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집단으로 치부했던 근대적 사유 체계는 실은 근대적 주체 이론으로 포착하기 어려웠던 ‘애매한 경계’를 부정적으로 포섭하면서 구성되었다. 즉 군중행동이나 군중심리로 불린 사회 현상은 근대적인 사회 변동 과정에서 “근대적 가족이나 기업에 아직 완전히 포섭되지 않은, 즉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질서에 분명하게 편입되지 않은 많은 사람이, 사적이면서 공적인 도시 공간의 애매한 경계에서 경험한 것을 지시한다는 점이다.”²⁰⁾ 이는 근대성의 해석에서 누락된 포섭되지 않은 제 3의 영역이 가지는 독자성에 대해 재해석해야 할 연구 과제를 남겨놓는다. 이는 앞서 논한 다스려질 수 없는 자들에 대한 연구와도 연결된다. 다스려질 수 없는 자들은 주로 유럽의 근대화 과정에서 근대적 주체(젠틀맨)와 노동자 주체성이 이분화 되어 구성되는

19) 이선옥, 앞의 글.

20) 이토 마모루, 앞의 책, 130쪽.

시기에 양자 어디로도 포섭되지 않았던 집단을 지시하는 개념이다. 풍기문란 집단 연구 역시 이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두 번째로는 이처럼 근대 군중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는 이른바 공사의 영역과는 다른 독자적인 논리와 공간을 가지는 영역에 대한 이론적 관심을 촉발했고 ‘공통적인 것common’(마이클 하트와 안토니오 네그리)에 대한 관심의 고조도 그 한 예라고 이토 마모루는 논의한다. 공통적인 것에 대한 논의가 페미니즘과 젠더, 퀴어 연구를 중요한 역사적 원천으로 해서만 가능해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서서도 논의한 바이다. 또한, 앞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정동 연구와 근대성 다시 읽기, 그리고 다스려질 수 없는 자들의 힘에 대한 연구는 사회적인 것과 에토스 그리고 결속의 방식에 대한 새로운 연구 의제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여자 떼 공포와 공론장 부재에 대한 위기감은 단지 ‘메갈’이라는 새로운 인종의 탄생에서 비롯된 것도, 그 집단의 실태 조사로 판단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최근 페미니즘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야말로,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의 역능을 문란, 퇴폐, 부적절함, 근본주의적 불순분자로 배제하면서 구축된 근대적 주체성과 공론장의 한계를 되돌아보는 ‘근본적’이고도 발본적인 이론의 재구성을 요청하는 사태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의 재구성에서 정동 연구와 페미니즘의 결합은 가장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제공할 거의 유일한 역사적 이론적, 실천적 원천이라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 『여성혐오와 수치;테러시대 도시의 불안』 심포지엄 자료집,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여성문화이론연구소 공동 개최, 2016.
- 『혐오의 시대에 맞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12가지 질문』, 한국 성소수자 연구회, 2016.
-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책』, 토론회 자료집,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2016.

2. 단행본

- 임옥희, 『젠더, 감정, 정치』, 여이연, 2016, 1~304쪽.
- 정희진 외, 『여성 혐오가 어쨌다구?』, 현실문화연구, 2015, 1~256쪽.
- 조정환, 『인지자본주의』, 갈무리, 2011, 1~516쪽.
- 조정환, 『예술인간의 탄생 - 인지자본주의 시대의 감성혁명과 예술진화의 역량』, 갈무리, 2015, 1~428쪽.
- 멜리사 그레그· 그레고리 시스위그 편저, 『정동 이론』, 최성희·김지영·박혜정 역, 갈무리, 아프콤 총서 02, 2015, 24~25쪽.
- 송제숙, 『혼자 살아가기:비혼여성, 임대주택, 민주화 이후의 정동』, 황성원 역, 동녘, 2016, 1~236쪽.
- 안토니오 네그리· 마이클 하트, 『공통체』, 정남영·윤영광 역, 사월의 책, 2014, 108~109쪽.
- Catharine A. MacKinnon and Andrea Dworkin, *Pornography and Civil Rights: A New Day for Women's Equality*, Minneapolis: Organizing Against Pornography, 1998.
- Catharine A. MacKinnon, *Only Words*, Cambridge:Harvard University Press 1993.
- Jeremy Waldron, *The Harm in Hate Speech*, Harvard University Press:Cambridge,Massachusetts, 2014.

- Judith Butler, *Burning Act: Injurious Speech*, 3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Roundtable 199, 1996.
- Judith Butler, *Excitable speech: A politics of the Performative*, Routledge(New York & London), 1997.
- Keith N. Hylton, *Implication of Mill's Theory of Liberty for the Regulation of Hate Speech and Hate Crimes*, 3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Roundtable, 35, 1996.
- Matsuda, Charles R. Lawrence, Richard Delgado, and Kimberle Williams Crenshaw, *Words That Wound: Critical Race Theory, Assaultive Speech, and the First Amendment*, Boulder, CO: Westview Press, 1993 .
- Susan Dwyer ed. *The Problem of Pornography*,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95.
- Wendy Brown, *State of Injury: Power and Freedom in Late Moderni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3. 논문

- 권명아, 「전쟁 상태적 신체와 슬픔의 공동체: 냉전 체제의 사회 병리적 현상에 대한 담론과 정념 공동체의 위상」, 『석당학술논총』, 56집, 2013, 1~35쪽.
- 권명아, 이행과 자기해방의 결속체들: 대안인문학 운동의 근경과 실험」, 『안과박』, 35호, 2013, 121~145쪽.
- 권명아, 정동의 과잉됨과 시민성의 공간: 홍수의 표상과 잠수의 정치학」, 『서강인문논총』, 37호, 2013, 115~142쪽.
- 권명아, 마음을 놓다: 안심의 어소시에이션을 위하여」, 『석당학술논총』, 59집, 2014, 1~34쪽.
- 권명아, 소녀의 죽음과 퀴의 미로: 여성적 가치와 파시즘의 교착에 관한 단상」, 『문화과학』, 78호, 2014, 130~143쪽.

- 권명아, '형상화의 폭력과 문학윤리의 재정치화'(일어), 『조선학회』, 조선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문, 2015년 10월.
- 권명아, '무한한 상호작용, 데모', 『실천문학』, 120호, 2015, 370~380쪽.
- 권명아, '대중혐오와 부대낌의 복잡성', 『문학동네』, 23호, 2016, 1~9쪽.
- 권명아, '신냉전 질서의 도래와 혐오발화/증오정치 비교역사 연구', 『역사문제연구』 35호, 2016, 11~45쪽.
- 김성호, '존재 리얼리즘을 향하여:최근의 총체성과 리얼리즘 논의에 부쳐', 『창작과 비평』, 제42권 제3호(통권 165호), 2014, 333~352쪽.
- 김은주, '에토스로서의 윤리학과 정동', 『시대와 철학』, 26권 1호. 2015, 43~75쪽.
- 김은주, '여성주의와 긍정의 윤리학:틀뢰즈의 행동학을 기반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 김재인, '지체의 틀뢰즈 읽기에 나타난 인간주의적-관념론적 오독', 『진보평론』, 56호, 2013, 196~220쪽.
- 김정하, '트라우마와 정동', 『비평과 이론』 19, 2014, 1~18쪽.
- 김종갑, '혐오와 여성의 살정동과 감정', 『안과 밖』, Vol.40 No. 영미문학연구회, 2016, 54~77쪽.
- 김현미, '인종주의 확산과 '국가없음'', 『2014 인종차별 실태보고대회 자료집』, UN 인종차별특별보고관방한 대응 시민사회단체 공동 사무국, 2014, 8~12쪽.
- 김현희, '외국인 범죄/테러리즘과 반다문화 정서의 "글로벌화"', 『OUGHTOPIA』, 30(1), 2016.5., 213~242쪽.
- 문강형준, '재난 시대의 정동', 『여성문학연구』, 35호, 2015, 41~67쪽.
- 박기순, '틀뢰즈와 스피노자: 무한의 사유', 『진보평론』, 2007, 41~64쪽.
- 박현선, '정동의 이론적 갈래들과 미적 기능에 대하여', 『문화과학』 2016. 6., 59~81쪽.
- 서동진, '우울한 가족:금융화된 세계에서의 가족과 정동',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1, 2015, 47~84쪽.

- 손희정, 혐오의 시대, 『여/성이론』, 32호, 2015, 12~42쪽.
- 엄진, 「전략적 여성 혐오와 그 모순: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의 게시물 분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2015.
- 오명석, 지식의 통섭과 인류학, 『비교문화연구』 18, 2012 175~222쪽.
- 유민석, 혐오발언에 관한 담화행위론적 연구, 동국대 철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5.
- 유민석, 혐오발언에 기생하기 : 메갈리아의 반란적인 발화, 『여/성이론』, 33호, 2015, 126~152쪽.
- 유재홍, 들뢰즈의 문학비평 - 비인칭적 자아를 중심으로, 『한국프랑스학 논집』 41, 2013, 343~364쪽.
- 윤영도, 소셜 미디어 장과 리액션의 정동역학(情動力學), 『중국현대문학』, (77), 2016, 113~143쪽.
- 이강형·김상호, 「감정과 공론장」, 『언론과 사회』, 22(1), 2014, 79~113쪽.
- 이묘량·차현숙(다문화+인권을 생각하는 모임), 교과과정 속의 인종주의 혹은 인종차별, 『2014 인종차별 실태보고대회 자료집』, UN 인종차별 특별보고관방한 대응 시민사회단체 공동 사무국, 2014, 20~28쪽.
- 이수안, 감각중심 디지털 문화와 포스트휴먼 징후로서 '호모 센수스(homosensus)'의 출현, 『문화와 사회』, 18, 2015, 127~168쪽.
- 이승현, 혐오표현(hate speech)에 대한 헌법적 고찰, 연세대학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
- 이연식, 해방 직후 '우리 안의 난민·이주민 문제'에 대한 시론, 『역사문제 연구』, 35호, 2016, 117~166쪽.
- 이정숙, "프레스 정동"의 탄생과 문학자의 "선언" -『동아일보』 "백지광고"에 나타난 시민성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사학회·민족문화사연구소, 『민족문화사연구』, 60호, 2016, 101~126쪽.
- 이정숙, 1970년대 한국 소설에 나타난 가난의 정동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이찬행, 그들은 왜 빈센트 친을 죽였을까?, 『역사문제연구』, 35, 역사문제연구소, 2016, 47~78쪽.
- 이향우, 동료 생산(peer production)과 시장, 『경제와사회』 99, 비판사회학회, 2013, 153~183쪽.
- 이향우, 구글의 정동 경제(Affective Economy), 『경제와사회』 102, 2014, 208~236쪽.
- 이향우, '이윤의 지대되기'와 정동 엔클로저, 『한국사회학』 50(1), 2016, 189~219쪽.
- 임국희, 맨스플레인, 폭로의 정치를 넘어서, 『여/성이론』 33호, 2015, 153~165쪽.
- 정수영, 「공감과 연민, 그리고 정동(affect)」, 『커뮤니케이션 이론』 11(4), 2015, 38~76쪽.
- 정혜실, 「미디어 속의 인종주의」, 『2014 인종차별 실태보고대회 자료집』, 2014, 13~19쪽.
- 조강석, 시 이미지 연구 방법론, 『한국시학연구』 42, 2015, 265~306쪽.
- 조강석, 「1960년대 한국시의 정동(情動)과 이미지의 정치학 (1)」, 『한국학연구』 38집, 2015, 63~90쪽.
- 조경희, 전후일본 70년과 복수의 평화주의 -SEALDs의 운동과 정동-, 『사이』, Vol.20 No. 2016, 267~299쪽.
- 진태원, 정동인가 정서인가, 『현대시학』 2016년 4월호.
- 천정환, 강남역 사건부터 '메갈리아' 논쟁까지, 『역사비평』, 116호, 2016.
- 최성희, 『햄릿』영화들과 정동, 『새한영어영문학』, 58(1), 2016, 43~68쪽.
- 최원, 정동 이론 비판, 『문화과학』, 2016년 6월, 82~111쪽.
-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성적소수자 학교 내 차별 사례모음집』, 2011.
- 허윤, 「냉전 아시아적 질서와 1950년대 한국의 여성혐오」, 『역사문제연구』, 35호, 역사문제연구소, 2016, 79~115쪽.
- 홍지영, 「틀뢰즈의 '되기' 개념을 통해 재고하는 섹슈얼리티의 문제」, 이화여

- 자대학교 철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
- Jenifer Hornsby, "Disempowered Speech", *Disempowered Speech*, Philosophical Topics 23, no.2, 1996, pp.127~147.
- Lisa H. Schwartzman, "Hate Speech, Illocution, and Social Context:A Critique of Judith Butler", *Journal of Social Philosophy*, vol. 33 No.3, Fall 2002, pp.421~441.
- Marth Nussbaum, "The Professor of Parody", *New Republic* 37(1999): pp.37~45.
- Rae Langton, "Speech Acts and Unspeakable Acts",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22, 1993, pp.293~330.
- Rae Langton, "Subordination, Silence, and Pornography's Authority", *Censorship and Silencing:Practice of Cultural Regulationn*, ed. Robert Post, Los Angeles:Getty Research Institute for the History of Art and Humanities, 1998.
- Rae Langton, "Whose right? Ronald Dworkin, Women, and Pornographers",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19, 1990.
- Wendy Brown, "Freedom's Silence", *Censorship and Silencing*, 1998, pp.313~327.

Abstract

Comparative Research Regarding Affect Studies and the Theoretical Resources of Gender Studies: Puissance of Ungovernables and the Fear Against the 'La Foule de Femme'

Kwon, Myoung-A

This thesis is the Comparative research regarding affect studies and the theoretical resources of gender studies. Especially focusing on the puissance of ungovernables and the fear against the 'la foule de femme'. Almost every affect studies produce in Western part and East Asia emphasize the gender studies, feminist researches and queer studies as theoretical resources of affect studies. In contrast with this 'general' tendencies of affect studies some studies of Korean 'left' group are eliminate gender studies, feminist researches and queer studies as theoretical resources of affect studies. This tendency of affect studies in Korean academic world is the historical effect of sexism and colonialism in scholarly field.

Key words : Affect Studies, Gender Studies, Modern Public Sphere, Le Public, La Foule, La Foule de Femme, Megallian

■ 본 논문은 2016년 11월 12일에 접수되어 2016년 11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6년 12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